

동향조사 749

BNPL(선구매 후결제)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조사

- Consumer Use of Buy Now, Pay Later:
Insights from the CFPB Making Ends
Meet Survey
미 소비자금융보호국 (2023. 03)

2023. 11.

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

Korea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Foundation

< 요 약 >

-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BNPL(Buy Now Pay Later)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조사함
 - BNPL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로, 2019년부터 미국 결제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여 규모가 증가하였으나
 - BNPL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재정상황에 관한 연구는 적었음
- 조사에 따르면 흑인, 히스패닉, 여성, 저소득층, 35세 미만 소비자일 경우 BNPL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
- 또한 평균적으로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와 비교하면 재정적 부담이 높은 금융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았음
 - BNPL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고, 대출 및 고금리 금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, 대출 연체가 있는 경우가 많았음
 - 또한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현금 및 저축액이 적었음
- 다만 BNPL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부터 BNPL 사용자들은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추정됨
 - 따라서 BNPL의 사용과 재정적 어려움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
- 국내에서는 경기침체로 금융취약계층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후불결제(국내 BNPL)의 연체율이 2023년 3월 4.4%에서 2023년 6월 5.8%로 급증함
 - 채무 부담, 과소비 조장 등 후불결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

1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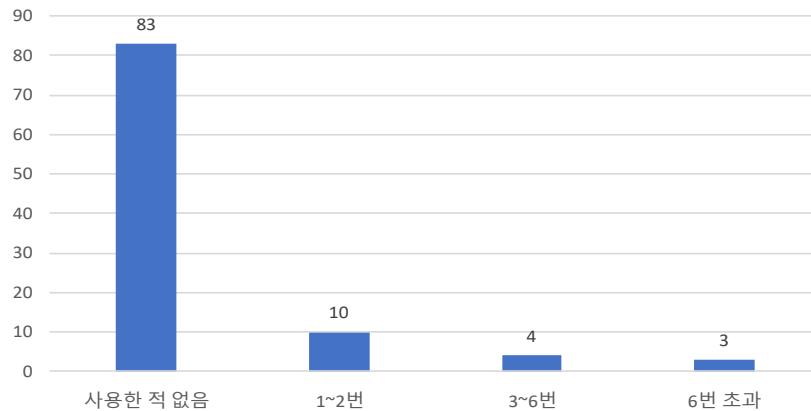
- 2019년부터 BNPL(Buy Now Pay Later)은 미국 결제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크게 성장함
 - BNPL은 무이자로 상품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임
 - 다만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(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, 이하 “CFPB”)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무이자로 4회 이하로 분할 상환하는 할부 대출만 BNPL로 지칭함
 - 2021년 BNPL의 대출 건수와 규모가 2019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함
 - 대출 건수는 2019년 1,680만건에서 2021년 1억 8,000만 건으로 970% 증가함
 - 대출 규모는 2019년 20억 달러에서 2021년 242억 달러로 1,092% 증가함
- BNPL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적었음
 - BNPL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특성과 BNPL의 사용이 소비자의 재정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
- 따라서 CFPB는 설문조사 및 행정 자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BNPL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고자 함
 - 보고서에 쓰인 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로 2,036명이 참여함

2 조사결과

가. 소비자의 BNPL 사용

- 2,036명의 소비자 중 17%는 최근 1년 동안 (2021년 1분기~2022년 1분기) BNPL로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
 - BNPL 소비자 중 58%가 1~2번 이용했다고 답했으며, 약 23%가 3~6번, 약 17%가 6번보다 더 많이 이용했다고 답변함

〈 그림 1 〉 소비자들의 BNPL 이용 빈도 비율



나. 인구통계학적 BNPL 사용분석

□ 소득이 낮을수록 BN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

-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BNPL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
- 연 소득 2만 달러 ~ 5만 달러인 경우 약 23%가 BNPL을 사용하지만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일 경우 9%만 BNPL을 사용함

□ 나이가 적을수록 BN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

- 35세 미만 소비자는 약 22%가 BNPL을 사용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약 10%만 BNPL을 사용함
- 또한 65세 이상 소비자는 65세 미만 소비자와 비교하면 BNPL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□ 주택 소유자보다 주택 임차인이 BN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

- 주택 소유자는 15%만 BNPL을 사용한 반면 임차인은 약 22%가 BNPL을 사용함

□ 여성, 흑인, 히스패닉일 경우 BNP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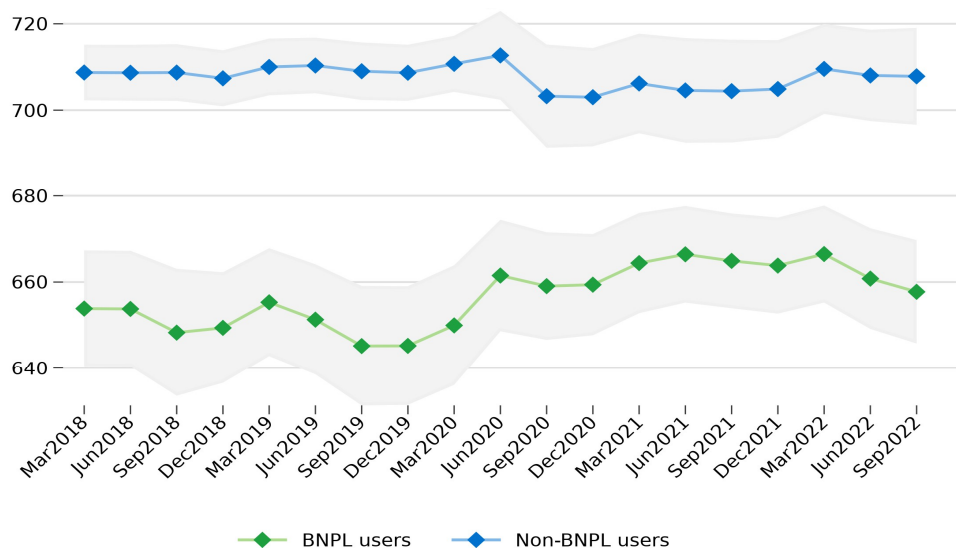
- 남성은 14%만 BNPL을 사용한 반면 여성은 20%가 BNPL을 사용함
- 백인은 16%만 BNPL을 사용한 반면 흑인은 26%가 BNPL을 사용함
- 비히스패닉은 15%만 BNPL을 사용한 반면 히스패닉일 경우 24%가 BNPL을 사용함

다. BNPL 사용과 신용점수 및 대출

□ BNPL을 사용한 소비자는 비사용자보다 신용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- BNPL 비사용자 그룹의 평균 신용점수는 프라임급(670~739점)인 반면 BNPL 사용자 그룹의 평균 신용점수는 서브프라임급(580~669점)으로 나타남
- 신용점수가 더 낮기 때문에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신용점수 추적 결과 BNPL 사용자 그룹은 BNPL을 사용하기 전에도 평균 신용 등급이 낮았음

〈 그림 2 〉 BNPL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신용점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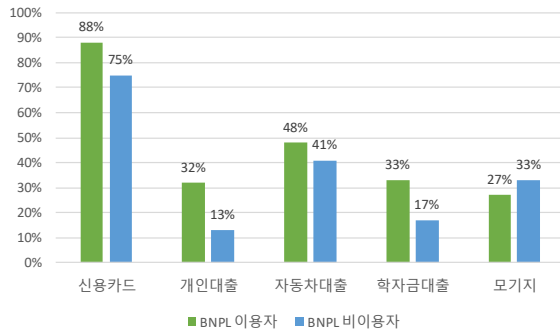


*회색 띠는 월별 평균 신용 점수에 대한 95% 신뢰구간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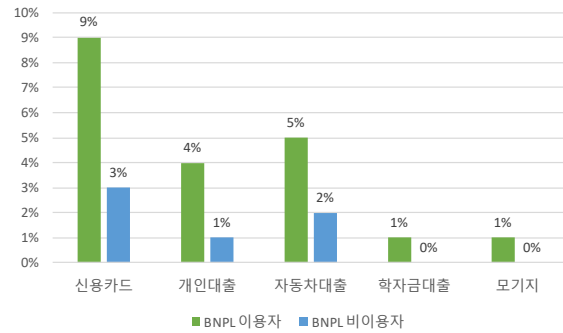
□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대출 상품 이용률과 연체율이 더 높았음

-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개인대출, 학자금대출,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비율 및 연체율이 더 높았음
- 다만 모기지(주택담보대출)의 경우 BNPL 사용자보다 비사용자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 그림 3 > 대출 상품별 이용률



< 그림 4 > 대출 상품별 연체율



*연체는 30일 이상 연체된 것만 측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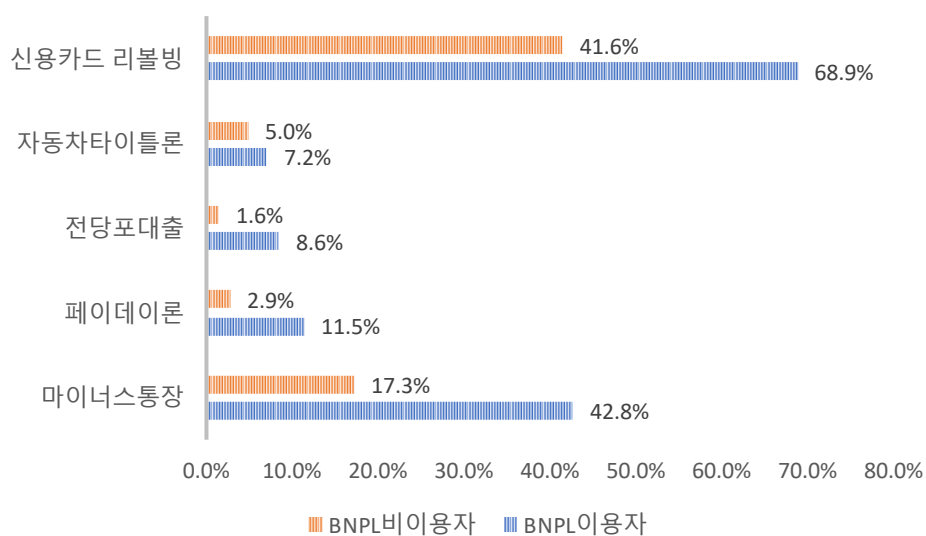
□ 또한 BNPL 사용자는 전당포 대출, 신용카드 리볼빙과 같은 고금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음

- BNPL 사용자의 신용점수가 평균적으로 서브프라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리볼빙의 연 이자율은 약 22~24%일 것으로 예상됨
- 이 외에도 고금리 금융 서비스인 마이너스통장, 페이데이론*, 자동차 타이틀론**의 이용률도 BNPL 사용자가 더 높았음

*페이데이론(payday loan)이란 월급날 대출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고금리 대출임

**자동차 타이틀론(Auto title loan)이란 차량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고금리 대출임

< 그림 5 > 고금리 금융 서비스 이용률



□ BNPL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률*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
*신용카드 사용률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한도로 나눈 값임

- 신용카드 사용률이 30%를 초과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여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BNPL 사용자 그룹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40~50%로 높은 수준임

라. 저축과 BNPL 사용

□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현금 및 저축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

- 2021년 1분기 ~ 2022년 1분기 BNPL 사용자의 평균 현금 및 저축액은 BNPL 구매에 지출한 총금액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 BNPL 사용자들의 BNPL 구매액 중앙값은 1,000달러였으며, 현금 및 저축액의 중앙값도 1,000달러였음
 - BNPL 사용자의 50%는 BNPL로 구매한 상품 금액보다 현금 및 저축액이 더 적었음
- BNPL 사용자의 약 25%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저축 자금이 없다고 답한 반면에 비사용자는 16%만이 없다고 답변함
- 또한 신용카드 유동성**도 BNPL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더 적었고, 사용자의 25%는 유동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

**신용카드 유동성은 신용카드 한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간의 차이를 말함

< 표 1 > BNPL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저축 및 신용카드 유동성 비교

(단위:달러)

평균 금액	BNPL 이용자	BNPL 비이용자
BNPL 사용액	2,085	0
저축(퇴직금 제외)	3,887	15,868
신용카드 유동성	13,980	17,916

*평균금액은 2021년 1분기 ~ 2022년 1분기 평균 금액을 나타냄

3 결론

- 연령, 소득 계층,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가 BNPL을 이용하였으나 일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BNPL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
 - 흑인, 히스패닉, 여성, 저소득층, 임차인, 35세 미만 소비자일 경우 BNPL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음
- 또한 평균적으로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재정적 부담이 높은 금융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았음
 - BNPL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고, 대출 및 고금리 금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, 대출 연체가 있는 경우가 많았음
 - 또한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현금 및 저축액이 적었기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 BNPL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부터 BNPL 사용자들은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추정됨
 - BNPL 사용자 그룹은 BNPL을 사용하기 전에도 신용점수가 비사용자에 비해 낮았음
 - 따라서 BNPL의 사용과 재정적 어려움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
- CFPB는 향후 연구에서 BNPL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지 혹은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

4 국내 현황

- 국내에서는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후불결제(국내 BNPL) 시장이 형성됨
 -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규제를 받아 최대 30만원 한도로 제한되며, 미국과 달리 분할 납부는 불가능함

-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에 후불결제 이용자는 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·주부·사회초년생이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임

□ 가입이 간편하고 이용이 편리하여 후불결제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

- 2023년 6월 기준 네이버, 카카오,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가 302만명을 기록함
 - 토스의 후불결제 가입자 수는 2022년 154만명에서 2023년 6월 223만명으로 증가함
 - 네이버의 후불결제 가입자 수는 2022년 66만명에서 2023년 6월 74만명으로 증가함¹⁾²⁾
-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,500명 중 36.6%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³⁾, 2명 중 1명은 월별 평균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임⁴⁾

□ 최근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강화되어 후불결제에 대한 연체율 및 액수가 급증함

- 2023년 6월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.58%를 기록한 반면⁵⁾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연체율 평균은 5.8%로, 2023년 3월 평균 4.4%와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평균 1.4%p 증가함⁶⁾
- 2023년 2분기 토스의 연체채권은 17억 1,000만원으로 1분기 15억 9,000만원보다 7.4% 증가했고, 연체율도 같은 기간 5%에서 7.76%로 늘어남⁷⁾
- 이러한 후불결제의 연체율 급증은 금융취약계층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상환 능력이 떨어졌음을 시사함⁸⁾

1) 헤럴드경제, “돈 줄 마르자 '후불결제' 늘고, 연체율도 급등…빅테크 후불결제까지 덮친 고금리[머니워너]”, <<https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130000182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2) 내일신문, “BNPL 결제방식, 국내외서 '연체율 상승' 부작용 나타나”, <https://www.naeil.com/news_view/?id_art=478327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3)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, 『2022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』, 2023.03.09., 183면.

4)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, 위의 책, 186면.

5) 경향신문, “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전년 대비 13% 감소…연체율은 상승”, <<https://m.khan.co.kr/economy/finance/article/202308161323001#c2b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6) 동아일보, “빅테크 후불결제 연체율 1.4%p 뛰어 5.8%”, <<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30813/120688874/1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7) 이코노미스트, ““나중에 갚으세요” 했더니 연체율 급증…‘혁신금융’ BNPL의 이면”, <<https://economist.co.kr/article/view/ecn202308230011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8) 경향신문, “터치 한 번에 외상…이렇게 쉬워도 괜찮을까”, <<https://m.khan.co.kr/economy/finance/article/202308160600025#c2b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□ 채무 부담, 과소비 조장 등 후불결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

- 후불결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에 리스크 관리에 취약함⁹⁾
- 후불결제 이용자들이 소득보다 높은 과소비를 하여 구매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, 상환할 수 있지만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고 타 후불결제로 옮겨 연체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¹⁰⁾
- 따라서 연체정보 공유와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
- 또한 연체율 급증에 따라 수수료율,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규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다만 신용카드에 비해 후불결제의 한도가 낮은 만큼 과잉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김상민 주임연구원, (02-761-5168,
ksangmin@kfcpf.or.kr)

9) 뉴스1, “'선구매 후불결제' 연체율 급증에...“연체 정보 공유돼야” 목소리 커져”,
<<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042695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

10) 한국경제, “핀테크 업계, 후불결제 연체증가에 고심...“연체정보 공유해달라””,
<<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301249766Y>> (최종접속일 : 2023.11.27.)